



全南大學 同窓會報



<제484호> 1986년 5월 10일 창간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25년 12월호>



전남대학교총동창회 2025년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승인...150여 명 참석해 성황리에 열려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 2025년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송년회가 12월 3일 라마다플라자총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오형석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이근배 모교 총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허정, 노동일, 박승현, 역대 회장과 모교에서 김양현·고성석·김용민 부총장, 주정민 대학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신승환 총학생회장과 진영채 총학생회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강기정 광주



오형석 이사장

광역시장에게 본회와 모교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5년 2차 상임이사회(의장 오형석 이사장)는 230명(재석



류혜경 총동창회장

80명, 위임 150명) 출석으로 개최했다.

‘제1호 의안: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승인’의 건은



이근배 모교 총장

안건 설명 후 의장이 찬성 여부를 묻고 회원들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민주길 평화걷기, 주먹밥 나눔 및 창립

70주년 기념식,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쌓기 모금 캠페인, 회원명부 제작, 테마파크조성, 70년사 편찬,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및 여수캠퍼스 통합 2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내용의 창립 70주년 행사가 내년까지 진행된다.

기타 안건으로 ‘내년 정기총회 전 상임이사회 안건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건’이 상정됐다.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은 “2026년 2월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될 예정인 상임이사회가 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임이사회 안건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회원들의 동의로 안건을 가결했다.

오형석 이사장은 “내년 창립 70주년 행사가 가결된 만큼 동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이사회와 동문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사회 이후에 송년회 자리를 갖고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상임이사회를 진행하는 오형석 이사장



상임이사회 축하무대 모습

본회·모교, 강기정(전기·82) 광주광역시장에 감사패 전달

“지역대학 글로벌 도약 기반 마련에 큰 역할”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와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2025년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송년회가 12월 3일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글로벌 대학30 선정은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기업도 ‘광주에 인재가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학-기업이 손을 맞잡고 광주를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주하며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발전의 새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류혜경 회장은 “강기정 시장

은 전남대학교가 교육부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대학이 하나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적극 추진해 지역대학의 글로벌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48만 동문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근배 모교 총장은 “이번 글로벌대학30 선정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라며 “강기정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인간 중심 AI 인재를 길러 지역

과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용현회, 2025년 송년회 성황리에 열어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교류의 장 역할 다하도록 노력”



본회 용현회(회장 조성희)는 ‘2025년 송년회’를 11월 25일 뜰안채에서 개최했다.

용현회는 본회의 동문 기관,

단체장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희 용현회장, 류혜경 총동창회장, 이근배 모교 총장과 보직교수를 비



롯해 김양균, 허정, 정인채, 박승현 역대 회장과 광주은행 고병일 행장을 대신해 임양진 부행장과 용현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성희 용현회장 인사, 류혜경 총동창회장과 이근배 모교 총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조성희 용현회장은 “2025년을 무사히 보내고 회원분들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2026년도에도 활발한 용현회 활동을 통해 용현회가 선후배와 현역기관장 동문들의 교류의 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용현회원들의 참여와 지지로 창립 70주년 행사를 잘 치르고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1956년 7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학 총동창회를 창립한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전대인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온 70년,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주제로 펼쳐지는 동문·재학생·지역민의 한마당,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새병원 건립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자 인터뷰

■ 김덕봉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전남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

“전남대병원은 지역민 모두의 것입니다.”

김덕봉 교수는 전남대 동문이 아님에도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에 참여해(벽돌 5장 100만원) 눈길을 끈다.

김덕봉 교수는 전남대 새병원 건립 기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김 교수는 “전남대병원은 전남대의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민 모두의 것이다”라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김덕봉 교수는 “광주는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라 애정이 각별하다”며 “고향에 전남대병원처럼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는 든든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늘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덕봉 교수는 “전남대병원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덕봉 교수는 광주일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 비서관, 국무총리 공보수석 등 요직을 맡았고 현재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세종시 정책 자문위원과 고려대 기업지역협력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 신승환(고분지용합소재·19)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새병원 건립은 지역 청년들의 미래와 밀접”

“새병원 건립은 단순히 대학의 발전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에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마음을 모아 모금에 참여했고, 신승환 총학생회장은 개인적으로도 벽돌 한 장 쌓기에 동참했다.

신승환 총학생회장은 “전남대 재학생이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소중한 취지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에 총학생회와 함께 또 따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신승환 총학생회장은 “새병원 건립은 단순히 학교의 발전을 넘어서 지역사회

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에 관심과 참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뜻깊은 과정에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많은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새병원 건립이라는 목표는 현실이 되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값진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하며 재학생과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강위원(국어국문·94) 50만원, 강훈열(사법·86) 60만원, 구용문(경영·72) 100만원, 김덕봉(일반) 100만원, 김보곤(경최·97기) 100만원, 김부용(화학공학·71) 20만원, 김영필(조경·88) 20만원, 김웅기(섬유공학·70) 2,000만원, 김재용(경영·88) 20만원, 김재화(경관·33기) 20만원, 김정길(의학·67) 100만원, 김제성(경영학과·86) 50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20만원, 김종해(지리교육·81) 100만원, 김택수(경제·72) 20만원, 김혜영(간호·91) 60만원, 노영대(경최·77기) 40만원, 류혜경(의학과·76) 3,00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 20만원, 박래전(경관·34기) 2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20만원, 박성열(농공학·91) 20만원, 박지민(철학·09) 20만원, 송태복(의학·71) 100만원, 신수정(사회문화복지정책) 20만원, 신승환(총학생회장) 20만원, 안정옥(간호·77) 20만원, 양광섭(자원공학·75) 20만원, 오성개(금속공학·76) 20만원, 오하늬(환경공학·10) 20만원, 오형석(불어불문·83) 2,000만원, 유경연(의학·70) 100만원, 이상소(행정대학원) 100만원, 이인호(법학·92) 20만원, 이효석(의학·01) 10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20만원, 임만택(농화학·67) 20만원, 임현준(교육대학원) 100만원, 장원익(의학·65) 40만원, 장희(화학공학·77) 200만원, 정동일(무기재료·86) 60만원, 정양식(물리·76) 100만원, 정준택(정치외교·79) 20만원, 주성범(미술·92) 20만원, 주순선(공법·86) 20만원, 지영배(국민윤리교육·88) 20만원, 최중구(건축·70) 100만원, 최희동(원예학·74) 500만원, 허 정(의학·70) 1,000만원, 황선욱(의학·66) 20만원, 전남대총학생회 20만원

(2025년 12월 19일 기준)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모 금 액 : 벽돌 1장당 20만원 (여러장 가능)
● 계 좌 :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등 기재)

*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062-528-9946)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사회 숙원 전남대 새병원 건립 -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전남대병원 본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병원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 불편도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병원 건립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9,629억원 중 50%에 달하는 자부담 비용 마련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전남대총동창회에서는 시·도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우리 대학 개교를 돌아보며 이을식 지사를 생각한다

내년은 우리 대학이 개교 74년이며 총동창회 창립 70년이 되는 해이다.

1952년 6월 9일 광주서중학교 운동장에서 5개 단과대학(공대, 농대, 문리대, 상대, 의대) 18개 학과로 개교하여 7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호남의 거점대학으로 성장, 발전했다.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많은 동문들이 목숨을 잃었고, 감옥에 갔으며, 학교에서 쫓겨났다. 5.18광주민주항쟁의 진원지로서 이 땅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48만 여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으며,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글로벌 대학의 위상도 갖추었다.

1909년 농업학교가 개교하여 창학의 역사가 116년이 되었지만, 바로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을 당해 고등교육이 바로 설 자리를 갖지 못했다. 일본의 한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은 교육정책에서 더욱 심했다. 일본의 교



이을식 지사

육 방침은 식민 통치에 맹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해방과 더불어 국민들의 고등교육을 향한 열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은 이념의 극심한 갈등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속되어 지방 국립종합대학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951년 9월 '전남대학교설립기성회'가 구성되었고, 10월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이을식 지사 당시 전남대학교 졸업식 축하하는 모습

수 없어 대학 설립의 기본인 재원마련부터가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현실에서 12월 이을식 도지사가 취임했다. 이을식 도지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으로 도민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투철한 사명감과 열성으로 전남대학교 설립에 큰 공적을 남겼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성금 6억 3천만 원과 일제의 패망으로 남겨진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의 주식(도민들에게 1주씩 배당 예정)과 향교재단의 농지증권 9억 원을 시장, 군수들과 유림대표를 설득하여 '전남대설립기성회'에 기부하도록 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민들의 피

와 땀으로 만든 재산만 기부하고 왜 국가에서는 지원이 없느냐며 반발이 극심했다. 재산기부가 무산될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성심을 다해 의원들을 설득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켜 재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도립인 광주의대, 광주농대, 목포상대 그리고 사립 대성대학의 통합 역시 쉽지 않았다. 특히 목포상대와의 통합은 도의회에서 이미 부결되었었고, 향교재단인 사립 대성대학은 전남대와 조선대를 놓고 대립과 갈등이 심했다. 이을식 지사는 도의원 한 분, 한 분 설득하여 목포상대의 통합을 재의결 받고, 향교재단의 갈등도 국

립대학인 전남대로 통합하도록 정리하였다.

초대 총장 최상채 박사의 추천, 용봉동 캠퍼스 부지 30만평의 마련도 모두 이을식 도지사의 해안 덕분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그가 당시 도지사였다는 이유 하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을식 도지사의 인재양성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전남대학교의 개교는 한참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개교 7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과 전남대학교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교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을식 지사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최희동 (원예·74) 수석상임부회장

청주하나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80 여명의 의료진 / 20 여개의 진료과 / 안전하고 우수한 국가인증 의료기관
주차빌딩, 주차타워 증축(440여 대 주차 가능)

특성화센터

심뇌혈관센터 | 척추관절센터 | 인공신장센터
혈관중재센터 | 내시경센터 | 건강증진센터

총동창회의 미래 '푸른용봉회' 2025년 송년모임 개최

류혜경 총동창회장 격려금 전달



본회 푸른용봉회(회장 강창우) 2025년 송년모임이 12월 1일 '갯포호사 삼촌카세'에서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류혜경 총동창회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이

참석해서 격려금을 전달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젊은 동문이 주축이 된 푸른용봉회가

총동창회에 큰 힘이 되는 조직으로 성장해 기쁘다"고 격려하며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미래

를 짊어질 푸른 용봉인들과 함께 송년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특히 이날 임주희(신문방송·99), 유연숙(건축·99), 양하영(수의학·03), 홍수정(중어중문·18), 김보름(법대·06) 신입회원 5명이 입회하여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

푸른용봉회는 젊다는 뜻의 '푸른'과 전남대 상징인 '용봉'을 합성해 만든 말이다. 다양한 직군의 30~40대 젊은 동문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두 달마다 정기 모임을 열고 있다.

구례지부 동창회, 순천지부와 함께 '가족 한마당 송년회'

본회 구례지부 동창회(회장 최춘태)가 순천지부 동창회와 함께하는 '정기총회 및 2025년 전남대 가족 한마당 송년회'를 12월 8일 구례읍 자매사브칼국수에서 개최했다.

이날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김종춘 순천지부 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최춘태 구례지부 회장의 재신임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최춘태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최춘태 회장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총동창회와 타지부 등과 협력하여 전대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이어 지역사회 및 동문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창호 동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은

"공직을 정년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최춘태 회장, 수고로운 봉사를 더하라는 부름을 받음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구례지부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어 "내년 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대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숙원인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부 송년회는 '작은 음악회'로 진행됐다. 대금산조 명인 김평부 선생의 연주와 소리는 명

불허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동문 기타동아리 회원 안길연 외 7인이 펼치는 '여섯 줄의 기타' 연주 공연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김창승 동문이 '사랑 그 그리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시집을 협찬했고, 김봉용 동문이 발간한 '김봉용 위원장의 그 치열했던 550일 기록'을 본회 부회장을 비롯한 구례지부 동문들이 구매하여 기증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에서 동문의 마음을 나누었다.

간호대학 동창회 친선 단합대회 개최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회장 박숙령) 친선 단합대회가 11월 8일 전주 한옥마을과 김제 금산사에서 임원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발에 앞서 박숙령 간호대학 동창회장은 "단합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창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단합대회가 간호대학 동창회 역량 강화에 중요



한 발판이 되어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동창회로 거듭나길 바

란다"고 전했다. 친선 단합대회의 첫 행선지

인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한 회원들은 고운 한복을 갖춰 입고 가을 정취에 흠뻑 빠졌다. 한복과 머리 손질, 핸드백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서로 즐거워하며, 단풍이 곱게 물든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이어갔다.

점심 식사로 전주의 명물인 전통 비빔밥을 함께 나누었고 오후에는 김제 금산사를 방문해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

는 미륵불상을 돌아보며 사찰의 웅장함과 평온함을 만끽했다. 가을 햇살 아래 사찰을 거닐며 대화의 꽃을 피운 선·후배들의 유대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날 회원들은 선·후배 간의 돈독한 친목을 다지고 동창회 발전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전남대, '2025 광주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11월 24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와 함께 '2025 광주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비전 선포식은 올해 글로벌대학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대학들이 광주시와 함께 광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지역 대학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로컬 혁신거점



으로 육성해 지역·대학·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남대학교는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통합)와 함께 지난 9월

28일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추진과제 발표, 기업·학생과의 공감토크, 비전선언 순으로 진행됐

다. 비전선언문은 ▲AI·웰에이징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선도 ▲대학·지역·산업의 상생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허브 도약 ▲지역혁신의 새로운 표준모델 정립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전남대학교는 AI 기반 지역 산업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융합교육센터 ▲AI융합연구원 ▲글로벌 공동연구소 설립 등 체계적인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전남대는 향후 ▲AI 융합 인재 2만 명 양성 ▲창업기업 200 개 육성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 등 구체적 성과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 AI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5년간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주형 교육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기반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며, 대학·지자체 동반혁신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지역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모색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주시의회와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는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

실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광주시, 전남대 RISE사업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재기 전

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종철 전 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 전동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사관이 발제했다.

김재기 전남대 RISE 사업단 책임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은 일제의 강한 감시 아래 생산된 것으로 희소성과 진정성이 매우 높은 자료"라며 "3·1운동에서 5·18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대 새로운 학생증 디자인 공개

전남대 광주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 '기억'은 최근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의 최종 선정작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반영함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작은 교내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와 일반 학생 대상 2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선정된 디자인은 전남대의



상징물인 용봉탑을 모티프로 삼고, 교시 '진리/창조/봉사'를 빛의 형상으로 표현했다.

세 갈래의 빛이 하늘로 뻗어 오르는 이미지는 대학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해당 디자인은 대학본부와 광주은행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신입생 학생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ico 주식회사 **제일산기**



대표이사
임 채 선
[경영대학원 35기]

자동차부품 | 금형제작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65(도전동)
TEI : 062-956-2300-1
FAX : 062-956-2304
Mobile : 010-3643-3080
E-mail : jeilcar@chol.com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소삭제!
당일 완성
라미네이트!

입구로, 평양에서 다수의 인제인, 유명인 치료 경력의 대표원장님이 하루 만에 당신의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주소는길
광주 서구 월드컵4길로 65 5층

전화상담
062-229-2875

진료시간
평 일 09:30 - 18:30
화 요 일 09:30 - 20:30
토 요 일 09:30 - 13:00
정식시간 12:30 - 14:00

전일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노 상 익
(행정학 88학)

소장실 : 061-278-2662 기획실 : 061-273-1222
사무실 : 061-276-2662 설계실 : 061-278-2277
Fax : 061-273-1222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178 (용당1동 1180-11)
M. 010-3642-2662
E-mail. 2762662@naver.com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대치과병원, 개원 17주년 기념식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은 개원 17주년을 맞아 치과병원 5층 평강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신 전남대병원 병원장, 황윤찬 전남대치과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치과병원 및 본·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병원의 17년 발자취와 향후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전남대 치과병원은 용봉동 이전 개원 이후 지난 17년간 호

남권 치과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환자 진료서비스 확대 △최신 의료장비 도입 △진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누구에게나 안전한 치과진료'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치과병·의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구강 보건 취약 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대, 인문대학 2호관 개축 완료

‘미래 인문교육 허브’로 재탄생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인문교육의 상징 공간인 인문대학 2호관 개축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1978년 첫 개관 이후 48년간 수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토론과 연구를 이어 온 이 공간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최신 연구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전남대는 지난 11월 11일 인

문대학 2호관 앞에서 공식 준공식을 열었다. 인문대학 2호관은 지역 인문학과 시민 지성의 중심 공간으로, 광주·전남의 문화예술·언론·교육·시민운동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재들을 길러낸 핵심 학문 산실이다.

새 건물은 연면적 4,690㎡,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친환경 구조다. 내부에는 교수연구실 76실, 학과사무실·자료실 8개실, 교수회의실, 학장·부학장실, 취업지원실 등 학생·교원을 위한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돼 인문교육 중심시설의 기능을 확실히 갖추었다.

전남대 인문대학은 이번 개축을 계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의 인문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문학·사회과학·AI 융합 연구를 확대하는 교육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인문학 아카데미, 시민 강좌, 지역 연계 학술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지역 사회의 문화·정신 자산을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성료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회장 박흥석)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20년 동행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다짐했다.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바이 윈덤 총장호텔에서 후원자 및 병원 관계자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You Raise Me Up: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희망을 일으켜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박흥석 후원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변산주류상사 종합주류

대표이사 **오흥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9기)

전남대학교 중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24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옆)
Tel : 063-584-0920~1
Fax : 063-584-2939
E-mail : hongkyo119@naver.com

조합원 4만명 · 자산 5천억

“VISION-45000”
신우신협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의 최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협에서 비교세 혜택을 만나세요!
예금 및 대출 그리고 보험까지~

예금 - 저축세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자유저축적금

대출 - 신용대출/당좌대출/경제안정대출
- 고위험대출/병사군부대출/실업신용대출
- 영수증/영목상환대출

앞으로의 금융 **광주신우신협**
SINWOO CREDIT UNION
광주광역시 남구 군북로116
062)364-6103

knus www.knus.co.kr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가치와 미래를 창조
Creative your future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의 가치와 미래를 창조”
(주)케이너스 대표이사 최영두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214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 02-3453-8513 FAX : 02-3453-8515
c.p : 010-3263-8837
E-mail: cydgood@gmail.com

Ⅰ 송경희 동문(영어영문·86, 개인정보위원장) 동문 - 「AI 혁명」 발간

AI 혁명 시대, 지혜롭게 살기 위한 생존전략 모색



바야흐로 AI 혁명의 시대다. SF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 현실로 들어왔다. 자율주행 자동차, 서빙하는 로봇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 송경희(영어영문·86, 개인정보위원장) 동문이 정책과 산업,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혁명(메디치)'을 출간했다. 저자는 수십 년간 정



부에서 첨단기술 정책을 총괄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계 AI 기술과 산업의 동향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AI 에이전트는 생활과 산업,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라고 할 만큼 거대한 편의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모든

디지털 흔적은 더욱 정교하게 분석된다.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이면에서는 개인을 보다 쉽게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송경희 동문은 미래는 AI를 쓰지 못하는 자와 AI를 잘 쓰는 자로 갈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AI 학습·활용은 물론이고 AI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AI 리터러시'를 익힐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산업현장과 공공 서비스에

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생산성 혁신 방향을 제안한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12대 이슈와 과제를 제안한다.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모두 AI를 활용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AI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과 성장 전략을 들려준다. 개인에게는 방향을, 사회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AI 대혁명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다.

Ⅰ 백애경(문화재학협동과정·10) 동문, 김옥열(신문방송·85) 부회장 - 「장미와 청어...」 「쇼팽과 호박...」 출간

인문 여행가가 쓴 친절한 동유럽 도시 여행기

다큐 사진과 함께 읽는 낯선 유럽의 풍경



백애경 동문



김옥열 동문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인문여행가' 백애경(문화재학협동과정·10, 인문여행가) 동문이 일반 단체여행객들이 흔히 찾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뒤 쓴 여행기 두 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여기에 김옥열



(신문방송·85, 다큐사진작가) 부회장이 함께 여행하며 촬영한 도시 풍경과 현장의 장면을 풍부하게 담아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미와 청어, 발트3국에서 7일」(이하 '발트3국'), 「쇼팽과 호박, 폴

란드에서 9일」(이하 '폴란드') 두 권으로, 모두 다큐북스에서 출간됐다.

「발트3국」은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함께 둘러보고 쓴 책이다. 발트3국 곳곳에는 중세 유적과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고, 개성 있는 도시들이 발달해 있어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책에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각 도시의 풍경, 옛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꼼꼼히 따라가며 기록한 여정이 담겼다.

「쇼팽과 호박, 폴란드에서 9일」은 폴란드의 주요 도시를 여행하며 인상 깊은 장면들을 소개한다. 특히 광주와 매우 유사한 역사적 슬픔을 가진 그단스크, 2

차대전의 폐허 속에 재건한 역사 도시 바르샤바, 유대인 학살의 현장 아우슈비츠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두 권의 여행기는 단순 정보를 넘어 역사와 종교, 문화, 전쟁 등 우리가 알아야 할 해당 국가들의 인문지식을 바탕으로 깔고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백 작가는 "발트3국이나 폴란드 관련 여행기는 종류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것도 대부분 가벼운 정보위주"라며 "독자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배경들을 소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큐북스>는 '여행자의 서재 컬렉션'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작가의 여행기를 시리즈로 출판할 예정이다.

화공계열 총동문회 2025년 하반기 체육행사 및 정기총회

전남대학교 화공계열 총동문회(회장 000) 2025년 하반기 체육행사 및 정기총회가 11월 29일 순천 파인힐스 CC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화공계열 동문

회원 50명이 참석해 2025년 사업보고를 진행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서 골프 체육 행사에 참여하면서 동문들의 우애를 다지고 마음을 나누었다.



인문대학 동창회 창립준비 모임 개최

본회 인문대학 동창회를 창립하기 위한 1차 모임이 12월 2일 진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준비 모임에는 김성호(국문·84), 강동준(국문·85), 이상명(국문·85), 김태영(불어불문·89), 조성식(사학·80), 서금석(사학·86), 정주영(일어일문·07), 박지민(철학·09) 동문이 참여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 김태완 모교 인문대학장, 회장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김영필 사무처장과 손희하 전 인문대동창회장 참석해 동창회 창립 모임을 지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인문대학 동창회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인문대학 동창회는 인문대학으로 단과대학이 분리된 이후, 뜻있는 졸업생들이 손광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여 조직했다.

이후 본회 제32대 노동일 총동창회장의 단과대학동창회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학과별 대표위원을 구성하여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회칙의 초안을 만들어 다듬어 2015년 11월 13일 금수장관관호텔에서 '인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희하(국문·75)를 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ROTC동문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ROTC동문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기 신이철(법대·57) 동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2대 집행부의 2025년 활동사항을 보고했고, '자랑스러운 105ROTCian'으로 선정된 안엽(22기), 김영식(27기), 최석민(50기) 동문에 대한 표창과 류재필(25기), 박경섭(34기) 동문과 12기, 29기에 대한 공로상



수여가 있었다. 12대 회장 이진용(26기, 자연대·84) 전임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13대 이정일(27기,공과대·85) 회장이 취임했다. 이정일 신임

회장은 "선배 없는 후배없고, 후배 없는 선배는 없다"며 선·후배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사무총장에 김형언(임학·87), 감사에 강석준, 김영



원(85) 회장 기수를 선임했다. 또한 전남대학교 105 학군단 한광철 단장이 학군단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동문들은 매년 줄어드는 후보생 숫자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내년에는 훌륭한 후배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글= 김형언(임학·87) ROTC동문회 사무총장

동문기고 - 이재철(의학·80, 반에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동문

“기능의학, 건강의 새 기준을 제시하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힘이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요즘 다들 피곤하다던데요.”, “친구도 위장이 안 좋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은 검진 수치가 정상이

고,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게 힘들어하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다들 그렇다’는 기준이 건강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의 건강 기준은 너무나 낮아져 있다.

현대인 대부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 바로 미병(未病)에 놓여 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반복된다. 스트레스

에 쉽게 무너진다, 운동 후 회복이 느리다와 같은 사소한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다. 그러나 검진 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넘어가곤 한다. 건강검진 수치는 평균값에 불과하다.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몸의 회복력과 적응력이 떨어져 있다면 이미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진짜 건강은 ‘수치’가

아닌 ‘기능’이다. 기능의학에서는 심박변이도(HRV), 염증 마커(IL-6, TNF-α), 혈당 변동성(CGM),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해 몸의 ‘진짜 상태’를 읽어낸다.

기능의학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의학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균형을 되찾는 의학이다.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왜 무너졌는지 찾

는다. 병이 되기 전, 미리 회복력을 되살리는 것이 기능의학의 본질이다. 지금이 건강 기준을 바꿀 때이다. 의사는 여정의 동반자일 뿐, 진짜 주체는 자신이다. 검진표의 숫자가 아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지금이 바로, 건강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다.

“서울동창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6. 02. 04.(수) 오후 6시 장소 : 국방컨벤션(삼각지역)

- ※ 행사 일정 18:00 식사(뷔페식), 공연, 영상 19:00 1부 총회 및 시상 19:30 2부 화합의 장 20:50 행운권 추첨 및 폐회

※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 추천

- 접수기간 : ~26. 01. 20.(화)까지
- 신청양식 : 추후 공지(지원서, 추천서)
- 수상자격 :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 심사 : 서울동창회장, 고문(역대 회장)

백제의 역사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충남 부여 사비길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5년 12월 정기산행기

12월 6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를 헤치고 충청남도 부여로 향했다. 이번에는 역사 기행이라는 의미를 산행에 담아, 백제의 역사가 남아있는 부여의 '사비길'을 선택했다.

이날 탐방은 사비길 총 13.4km 중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출발해 부소산성을 지나는 구간으로 정했다.

박물관 주차장에 도착한 회

원들은 먼저 부여 지역에서 발굴된 백제 후기의 유물을 관리하는 국립부여박물관을 견학했다.

이후 시내를 가로질러 고즈넉한 부소산성에 들어섰다. 손끝이 시릴 만큼 추웠던 아침과 달리 밝고 따뜻한 햇살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나누는 점심으로 몸까지 훈훈해졌다.

산성 안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선착장까지 왔다. 백마강 유람



선을 기다리며, 낙화암이 간직한 백제의 애달픈 역사를 향한 마음을 고란사의 평온함에 작은 위로를 건넸다. 황포돛배에 올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니 산성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감동이 더해졌다.

유람선 도착지인 구드레 나루터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산행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산행이었다. 하나는 12월 마지막 산행임에도 일상적인 송년회 대신 역사탐방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스

2대가 필요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 산악회는 보통의 산행보다 조금 더 의미를 담고 감동을 주는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토요일)에는 신년 산행을 주제로 광주권 산행 후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2월 7일(토요일)에는 눈꽃산행을 주제로 대둔산에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양궁용 수석총무(010-2533-5243)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김덕령의 광주사랑” ④7

④7 취가정 이야기, 취하여 노래하니 듣는 이 없구나
글·그림=김길남 (지리교육·77) 동문

송강 정철의 제자 가운데 석주 권필(1569-1612)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서 학문을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필의 꿈에 김덕령 장군이 찾아왔다. 깜짝 놀라는 권필 앞에서 장군은 시 한 수를 읊었다. 취하여 노래하니 듣는 이 없구나 / 꽃과 달에도 취하기 싫고 / 큰 공을 세우는 일도 바라지 않네 / 큰 공을 세우는 일은 뜯구름 같고 / 꽃과 달에 취하는 일도 뜯구름 같고 / 취하여 노래하니 알아주는 이 없구나 / 긴 칼 손에 들고 어진 임금께 보은하기만 바랄 뿐, 취하여 부르는 노래, 이 시는 훗날 취시가(醉詩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김덕령을 '전국의병대장'으로 발탁한 인물은 선조, 그러나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도 선조다. 춘산에 불이나니 못다 핀 꽃 다 불는다 / 저 피 저 불은 끝물이나 있거니와 / 이 몸에 내없는 불이 나니 끝물 없어 하노라. 여기서 불이란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불을 다 끄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장군은 얼마나 비통했을까? 장군에게 병조판서를 추증(追贈)하고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이는 개혁군주 정조다. 정조는 김덕령 장군이 태어난 동네에 충효리라는 이름도 내려준다. 취가정은 환벽당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후손들이 김덕령 장군을 기려서 세운 정자다. 여기에 취시가가 걸려있다. 어진 임금이 그림다. 그 어진 임금을 만나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고 싶다. 김덕령은 지금도 그렇게 외친다. 무등산에 가지거든 충효리, 충장사, 취가정을 찾아서 김덕령 장군을 만나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봄마다 무등산을 물들이는 진달래, 김덕령 장군의 붉은 마음이 피워내는 꽃이 아닌가? 꼭 물어보시기를.

(재)광주어머니장학재단

이사장/명예정치학박사
한 영 (정외 65후)

[한영 장학금]

정영일 박사(한영 부군)께서 모교 발전기금으로 명명 기탁하심

- ◆ 본 장학재단은 1972년 이 지역 어머니들이 모여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활동해 왔음
- ◆ 장학재단은 2005년 당시 회장이셨던 이순정님께서 재단법인 설립

(현재 고교생에게만 지급함/현재까지 2,000여명에게 지급됨)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서림로 100
TEL : 062-528-8511
FAX : 062-528-8212
E-mail : kgjmother@naver.com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변호사 박수영
(정치외교학과 99학번)
E : sooyoungp@hanilaw.com

| 주요업무분야 |

- 건설클레임 자문 및 소송, 대한상사원 중재
- 공공건설계약, 민간건설계약, 공사대금청구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간접비, 지체상금 등)

| 주요경력사항 |

- 현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분야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39층
T : 02-6956-1301 F : 02-6956-1302
M : 010-2858-3082 www.hanilaw.com

명품청보리향 포리지

1. 유산농업매장
2. 방문관 + 방문시양
3. 최의상단체관

명품시골 | 1층 판매관 09시 - 08시
2층 식당 09시15분 - 08시
명품시골 | 1층 판매관 09시 - 08시
2층 식당 09시15분 - 08시

명품청보리향 포리지

명품청보리향포리지

1임지락(원예·83, 전남도의원) 부회장

출판기념회 성료

‘Reader & Leader’ 출판기념회에 2,500여명 참석

본회 임지락(원예·83, 전라남도의원) 부회장의 저서 ‘Reader & Leader’ 출판기념회가 11월 29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화순 주민과 전남·광주 주요 인사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지락 도의원의 ‘정치적 스승’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임지락 도의원은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능력·전문성·도덕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임지락 도의원은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더해 진정성까지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정치는 국민을 위해 쓰임을 받는 도구라는 마음으로 실천

해야 한다”며 “임지락 도의원은 우리 시대 화순군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최희동 본회 수석상임부회장은 축사에서 “당당하고 멋진 대학생이었던 임지락 의원이 화순군의원을 거쳐 전남도의원으로 곧게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이제 화순을 위해 큰 역할을 하

려고 한다”며 “앞날을 응원하고 축원한다”고 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늘 리더가 되려고만 한다”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잘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다.

임지락 의원은 화순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농과대학 학사,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화순군 정책보좌관과 화순군의원(제5·6대)을 역임하고 2022년 도의원에 당선돼 현재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전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재경 정치외교학과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열려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 세미나’에도 참석



재경 정치외교학과 동문회는 2025년 총회 및 송년회를 12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경 정치외교학과 올해 사업을 돌아보고 2026년 행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활동해 재경 정치외교학과 동문회를 이끌어 온 김형국(정치외교·72) 이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총회에 앞서 김재기(정치외교·84, 전남대 교수) 동문이 주관한 ‘광주학생운동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가 재경 정치외교학과 동문 15명, 서울동창회 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무등지구 모임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경태) 모임이 11월 24일 월요일 산수동 ‘남원골 추어탕’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노동일, 장영

태, 김창현, 이호근, 변연학, 정호채, 김태훈, 정현철, 양혜령, 이태욱 동문이 참석해서 근황을 나누었다.

수의과대학 동문들, 전남대 동물병원에 5천만원 기부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의과대학 동문들이 이기투합했다.

고가의 안과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수의과대학 동창회와 재경 동문회가 뜻을 모아 동물병원의 진료환경 개선과 전문 진료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에 따르면 수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오기석)와 재경동문회(회장 이승철)가 전남대학교 동물병원 발전을 위해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12월 4일 대학본부 5층에서 김양현 교학부총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렸으며,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오기석 수의대 동창회장, 이승철 재경동문회장, 이봉주 동물병원장, 정만복 동물병원 진료부장, 박상익 수의대 학장, 김동일

수의대 부학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와 동창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의과대학 동창회는 1988년 창립된 이후 37년간 약 2천여명의 동문을 하나로 잇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재경동문회 또한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며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기석 동창회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

탬이 되고자 동문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이번 기부가 수의대와 동물병원이 더욱 발전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철 재경동문회장은 “전남대 동물병원이 지역 동물 의료의 중심 역할을 더욱 탄탄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했다”며 “정성껏 마음을 모아 주신 동문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재석(정치외교·58) 동문

‘격동의 시대 청와대 실록’ 발간



이재석(정치외교·58) 동문이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요점정리한 역사교과서라고



치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재석 동문은 55여 년 동안 출관계에서 일했다. 교학사, 동아출판사, 월간 진학사, 삼성출판사, 대한출판공사, 정법문화사 편집주관을 지냈다.

할 수 있는 ‘격동의 시대 청와대 실록(울림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청와대 74년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통치 기록으로 독자들의 대한민국 현대정

단체 구매 문의 010-3773-3508.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문석환(경영·70) 동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취임



광주교통공사 신임 CEO로 문석환(경영·70) 동문이 12월 16일 취임했다. 문석환 동문은 취임사를 통해 “이동이 편리한 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공적인 2호선 시대를 활짝 열고, 수송 수익 증대와 국내 및 해외 철도 사업 참여 등으로 재정 건전화와 경영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문석환 동문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수산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한편 광주교통공사는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광주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지휘본부’ 역할로 재편됐다.

■ 장귀남(무역·97) 동문

제 58대 목포교도소장 취임



장귀남(무역·97) 동문이 12월 1일자로 제58대 장귀남 목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 장귀남 동문은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장귀남 소장은 지난 2000년 교정간부로 임관한 이후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진주교도소장 등 다양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0년 법무부장관 표창, 2020년 대통령 표창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장귀남 동문은 취임 인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는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정 신(의학·80) 상임부회장

대한뇌신경기능장애연구회장 취임



정 신(의학·80, 전남대병원장, 신경외과 교수) 상임부회장이 국내 뇌신경 기능장애 연구 분야를 이끌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정 신 동문은 제16차 대한뇌신경기능장애연구회 정기학술대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인준받고 1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은 정 신 동문이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신경 기능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호남권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 신 동문은 전남대병원장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수장 역할과 함께 학회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송창운(법전원·10) 동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에 선출



송창운(법전원·10) 동문이 ‘제14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에 선출됐다. 송창운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동안 민변 광주전남지부를 이끈다. 이번 선거에는 66명 회원 중 61명이 참여했다. 송창운 동문은 투표에 참여한 회원 모두에게 찬성표를 얻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송창운 동문은 광주 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5·18기념재단 이사,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 광주시 행정심판위원, 광주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 정재영(대학원 언론학 석사·03) 동문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



광주광역시 공직인 광주관광공사 제2대 사장 후보자로 정재영(54) KBC 광주방송 광고사업국 부장을 내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정재용 동문은 1996년 KBC광주방송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지역 언론계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광주시는 정 내정자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온 감각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도시관광 산업의 전환기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적임자로 보고 있다. 한편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 내정자는 동신고와 서강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광주전남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주정민(신문방송·82) 동문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 취임



주정민(신문방송·82, 전남대학교 대학원장) 동문이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 ‘2025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주정민 동문은 미디어 콘텐츠 정책과 플랫폼 규제 분야의 전문가로, 학계와 공공부문에서 활발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이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미디어 산업 및 콘텐츠 정책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취임사에서 주정민 동문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미디어 환경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ww.poinex.co.kr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 공고합니다

PoinEX

Innovation in Protection, SAS, SCADA & DCS

대표이사 **임근일** (전기공학과 83후)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미사센터비즈 F623-F624호
T. 031-5175-3690 F. 031-5175-3680
E-mail. gilim@poinex.co.kr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진리·창조·봉사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광주전남화약(주) 대표이사 정치성
-화학과 83후, 행정대학원 05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SONG-SON & PARTNERS

대표변호사 손진홍

주요저서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하)
부동산경매의 실무(상,하)

- 서울중앙지검 형사시간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 연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명목지원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지원장
- 남원지/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2011, 2012년)
- 여원여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제2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광주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 사법시험 37회/사법연수원 27기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86학번)
- 광주 송원고등학교 졸업(19회)
- 전남 하순 출생

광주광역시 도구 동명로 102, 4층 / Tel : 062-227-1788
E-mail : sonda33@naver.com / snp1788@naver.com

■ 윤경철(의학·88) 상임부회장

한국애브비 학술연구상 수상



윤경철(의학·88,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 상임부회장이 대한안과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및 아시아 폐쇄각녹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애브비 안과 의학자를 위한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윤경철 동문의 수상 논문은 '한국형 안구건조증의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다. 한국건성안학회 회장인 윤 교수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다.

■ 김성의(신문방송·85) 동문

한국언론중재위원 임명



김성의(신문방송·85, 사)광주전남언론럼이사장) 동문이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신임 중재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성의 동문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의 동문은 나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호남대 행정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무등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하여 광주매일, 남도일보에서 현역기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2025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송년회



생활과학대학 동창회(회장 박연옥) 송년회가 12월 12일 화니웨딩에서 열렸다. 이번 송년회는 연말 분위기에 맞춰 '드레스 파티'를 컨셉으로 진행했다.

박연옥(식품영양·90) 생활과학대학동창회장은 "의류학과를 졸업한 정영숙 생활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님이 멋진 드레스와 장소를 협찬해 주셔서 송년회를 맞아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생활과학대학 동창회는 이후 정기 모임에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로 모임을 운영하여 동문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2025 정의인 송년의 밤' 개최



정치외교학과 동창회(회장 이승행)가 송년의 밤을 12월 9일 베네치아 지산본점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에서 박하일 교수, 김광수 교수, 최영관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역대 한영 회장님, 박찬문 회장, 장영태 회장,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간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승행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장은 "올해는 조직 정비, 행정체계화, 회비 제도 정착, 주요 행사 활성화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동창회 활동과 모교 발전을 위해 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25년 12월 30일(화) 전남대 송년음악회
- 26년 1월 2일(금) 5·18묘역 참배
- 26년 1월 8일(목)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11월 25일 용현회 송년회
- 11월 28일 ROTC동창회 정기총회
- 11월 29일 여수지부(화공계열) 골프대회
- 12월 1일 푸른용봉회 송년모임
- 12월 2일 역대동창회장 오찬간담회
- 12월 2일 인문대학동창회 창립준비모임(1차)
- 12월 3일 총동창회 상임이사회 및 송년회
- 12월 8일 구례지부동창회 송년회
- 12월 12일 생활과학대학동창회 송년회
- 12월 18일 수의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12월 23일 여성용봉회 송년회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2)

저자 _ 장궁아오
번역 _ 김혜은
기획 _ 유용상
발행일 2025년3월30일
정가 25,000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고문인 유용상 공산수원미래아동병원장이 한의학 이론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작별을 촉구하는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 2권'을 출간했다.

중국 의학철학자 장궁아오 교수와의 교류와 공감의 담긴 이 책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의학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인권 향상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용상 병원장은 "이 책은 단순히 한의학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의학 담론을 통해 한의학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면서 과학적이고 인권 존중적인 의료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대한 담론"이라고 전했다.

유용상(의학과 80졸)
_ 의학박사, 전문의
_ 2005년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_ 2015년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1)



대표이사 정명철
건축사 | CVS
공학박사

경력사항
전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회장
전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전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주)에이엠지그룹
Architecture Management Global

우리가
바라는미래,
대한민국건축사

건축설계·감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공사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모듈러 주택 설계·감리·시공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309번길 41-1(에이엠지그룹빌딩) Tel : 062-528-19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712호 Tel : 02-540-8906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자 문 위 원 : 30만원 이상 부 이 사 장 : 2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0월 분

임원회비 (1월 1일~10월 31일)

회 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조국현(의학·61) 10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고 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라석찬(의학·57) 5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이연익(수의·63) 30만원

▲이정재(경최·25기) 3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김안자(간호·62졸) 50만원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구연수(행관·29기) 20만원

▲김경호(경영·86) 30만원

▲김대중(철학·79) 30만원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 영(화학공학·72) 3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김종령(정치외교·74) 30만원

▲김주현(경제·75) 30만원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신종봉(수의·71) 30만원

▲오광인(임학·65)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이선규(행정대학원·6)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장문자(여성지도자과정·4기)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정찬구(경최·95)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최희갑(명예회원) 3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300만원

상임부회장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종선(의학·92) 300만원

▲박명숙(수학·87) 300만원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양부남(법학·80) 5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이지현(경제·08)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정민호(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홍은화(독어교육·83) 300만원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강승희(농학·97) 200만원

장학재단 감사

▲이성길(법학·78) 100만원

▲김정민(회계·90) 50만원

부회장(집행위원)

▲민정준(의학·85) 50만원

▲황윤찬(치의학·92) 50만원

단과대회장

▲박숙령(간호·74) 50만원

▲손희하(국어국문·75) 50만원

▲윤진학(미술·86) 50만원

▲오기석(수의·77) 50만원

▲서해현(의학·75) 50만원

▲이만선(경관·25기) 50만원

▲류상욱(해양·82) 50만원

부회장

▲강상규(행정석사·95) 50만원

▲강대광(농업경제·82) 50만원

▲강형선(기계공학·02) 50만원

▲강훈열(사법·86) 50만원

▲고병욱(철학·98) 30만원

▲고병일(경제·84) 50만원

▲고영칠(신소재공학·99) 50만원

▲고창욱(최고경영자과정·) 10만원

▲김건안(사회목회복지·19) 50만원

▲김남균(원예·82) 50만원

▲김동찬(경최·26기) 50만원

▲김명균(사학·85) 50만원

▲김명호(의학·79) 50만원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성원(경영·80) 50만원

▲김성홍(사법·91) 5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30만원

▲김용권(디스플레이공학·94) 50만원

▲김용집(행정대학원·82) 50만원

▲김용환(수의·85) 50만원

▲김윤세(경최·10기) 50만원

▲김재웅(경영·88) 50만원

▲김재찬(행정석사·12) 50만원

▲김재필(축산·82) 50만원

▲김정후(영어영문·80) 50만원

▲김정희(정치·86)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종춘(무역·78) 50만원

▲김준안(정치외교·95) 50만원

▲김진혁(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나수진(농생물·88) 5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노상익(행관·88) 5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노진영(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류현호(의학·89) 50만원

▲맹종호(임학·84) 5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 인(토목석사·96) 50만원

▲문재용(기계공학·85) 50만원

▲민기홍(행정석사·9) 50만원

▲민상준(경영석사·11) 50만원

▲박경우(신문방송·86) 50만원

▲박매호(농학·87)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서연(화학공학·88) 50만원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박 원(행정·85) 20만원

▲박준수(경제·83) 20만원

▲박현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백지훈(신문방송·90) 50만원

▲범희승(의학·76) 5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선종아(낙농·86) 50만원

▲손창환(회계·77) 50만원

▲손해수(수의·85) 30만원

▲송종욱(정치외교·81) 50만원

▲심재연(간호·76) 50만원

▲안영근(의학·83)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양혜령(치의학·81) 2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오유나(영어교육·92) 50만원

▲우남일(수의·88) 50만원

▲윤 익(미술·84) 50만원

▲이경준(법학·76)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승룡(건축·78) 50만원

▲이승택(의학·82) 50만원

▲이연풍(경관·14기) 5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임성복(사법·82) 50만원

▲임종대(금속공학·84) 50만원

▲임지락(원예·83)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장상문(농공학·81) 30만원

▲전창주(제약·82) 3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 남(미술·90) 10만원

▲정덕근(일반행정·3) 2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조상현(농업경제·82) 50만원

▲조진형(치의학·91) 50만원

▲주중섭(철학·88) 50만원

▲차정은(행최·6기) 30만원

▲최정희(사법·92) 50만원

▲최태태(농학·81) 15만원

▲최현진(무역·89) 50만원

▲한태호(원예·88) 10만원

▲홍승희(기계공학·70) 5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신중혁(산림자원·99) 3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이준근(경관·34기)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이 사

▲임동국(약학·3) 20만원

▲정경훈(약학·11) 20만원

▲전미희(식품생명공학·9)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10월 31일)

-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 ▲마영완(화학·83졸) 50만원
- ▲김 완(의학·76) 50만원

연회비 (1월 1일~10월 31일)

- 간호대학**
- ▲김혜영(간호·91)
 - ▲최선례(간호·60졸)
 - ▲남상옥(간호·68)
 - ▲문정선(간호·74)
 - ▲서항자(간호·67졸)
 - ▲안정옥(간호·77)
 - ▲이종임(간호·82)
 - ▲최영자(간호·73졸)

- 경영대학**
- ▲강대성(무역·76)
 - ▲강부암(회계·90)
 - ▲김선윤(경영·83)
 - ▲김영근(경영·87)
 - ▲김영철(경영·75)
 - ▲김원호(경제·65)
 - ▲김윤곤(회계·82)
 - ▲김재명(경영·87)
 - ▲김재인(경영·83)
 - ▲김태수(경영·80)
 - ▲민화식(경제·58)
 - ▲박병춘(경영·80)
 - ▲봉필삼(회계·83)
 - ▲소홍석(무역·74)
 - ▲송천식(무역·58)
 - ▲윤명호(무역·67)
 - ▲이문규(무역·87)
 - ▲이승국(행정·90)
 - ▲이주환(지역개발·86)
 - ▲정선호(무역·77)
 - ▲최성주(경제·80)
 - ▲한동철(무역·75)
 - ▲한성수(회계·82)
 - ▲김남규(회계·84)
 - ▲김정호(무역·79)
 - ▲임문규(경영·73)
 - ▲홍장표(경제·55)

- 공과대학**
- ▲강대욱(토목공학·58)
 - ▲강진하(금속공학·72)
 - ▲고형석(건축공학·61)
 - ▲김관현(토목공학·61)
 - ▲김부용(화학공학·71)
 - ▲김상태(기계공학·75)

- ▲김선식(화학공학·69)
 - ▲김성귀(토목공학·79)
 - ▲김영남(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용백(건축공학·68)
 - ▲김용재(금속공학·70)
 - ▲김인구(토목공학·80)
 - ▲김종근(건축공학·72)
 - ▲김진하(화학공학·69)
 - ▲김현호(금속공학·68)
 - ▲김형주(화학공학·80)
 - ▲노한주(건축공학·70)
 - ▲류정균(화학공학·84)
 - ▲박동주(전기공학·61)
 - ▲박순식(토목공학·83)
 - ▲박종호(토목공학·77)
 - ▲백부선(화학공학·55)
 - ▲변영재(요업공학·68)
 - ▲서금렬(공업화학·85)
 - ▲서정철(전기공학·68)
 - ▲손동일(건축공학·83)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병수(기계공학·72)
 - ▲오상용(화학공학·69)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윤재화(토목공학·58)
 - ▲이병길(화학공학·58)
 - ▲이은수(기계공학·81)
 - ▲이재동(토목공학·71)
 - ▲이한목(토목공학·58)
 - ▲이한민(토목공학·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현성(토목공학·73)
 - ▲이형섭(금속공학·76)
 - ▲장 희(화학공학·77)
 - ▲장상옥(전기공학·72)
 - ▲정달성(전기공학·72)
 - ▲정우섭(화학공학·70)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한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조대우(요업공학·69)
 - ▲지영섭(금속공학·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양석(화학공학·89)
 - ▲최연수(금속공학·81)
- 농업생명과학대학**
- ▲가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김을수(임학·79)

- ▲김재익(농화학·68)
 - ▲박금중(농학·73)
 - ▲박상준(조경·83)
 - ▲박인진(농학·66)
 - ▲박준기(농업경제·86)
 - ▲변연학(임학·67)
 - ▲서영권(농학·69)
 - ▲신동길(농업경제·86)
 - ▲심재윤(농학·71)
 - ▲유종석(임학·78)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옥(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정구선(임학·58)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최안성(축산·82)
 - ▲한태호(원예·88)
-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강훈열(사법·86)
 - ▲김귀중(행정·72)
 - ▲김길원(법학·65)
 - ▲김병하(법학·77)
 - ▲김성홍(사법·91)
 - ▲김철영(법학·57)
 - ▲나현숙(공법·87)
 - ▲문동길(행정·78)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배상호(법학·67)
 - ▲유영성(법학·79)
 - ▲윤서강(사법·86)
 - ▲이두백(법학·69)
 - ▲이승국(행정·90)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최준동(행정·71)
 - ▲최태화(법학·58)
 - ▲황의봉(법학·58)
- 사범대학**
- ▲김종해(지리교육·81)
 - ▲박경자(지리교육·79)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 사회과학대학**
- ▲김석병(사회·78)

- ▲김양순(심리·87)
 - ▲김형국(정치외교·72)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송재기(정치외교·72)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헌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 생활과학대학**
- ▲박미림(의류·80)
- 수리과학대학**
- ▲고진구(수리학·73)
 - ▲고태오(수리학·80)
 - ▲문무광(수리학·61)
 - ▲문병현(수리학·73)
 - ▲백병선(수리학·72)
 - ▲성광일(수리학·53)
 - ▲안익순(수리학·69)
 - ▲유동현(수리학·56)
- 약학대학**
- ▲김영란(약학·86)
- 의과대학**
- ▲김용덕(의학·75)
 - ▲김종성(의학·77)
 - ▲민혜란(의학·78)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손석준(의학·76)
 - ▲안영안(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윤영의(의학·61)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 ▲최정섭(의학·79)
 - ▲허인무(의학·53)
- 인문대학**
- ▲강상옥(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김종욱(철학·72)
 - ▲류순범(영어영문·76)
 - ▲문흥기(국어국문·60)
 - ▲박창준(중어중문·84)
 - ▲성낙준(사학·72)
 - ▲신남영(국어국문·81)
 - ▲엄철주(영어영문·79)
 - ▲이성규(영어영문·81)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지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순영(영어영문·76)
-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 ▲문정호(생물·73) 치과대학
- 최준규(치의학·87)**
- ▲전상민(치의학·00)
-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 경영전문대학원**
- ▲강대일(경관·27기)
 - ▲고병선(경관·29기)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유병진(경영석사·90)
 - ▲이유섭(경관·22기)
 - ▲이학재(경최·21기)
 - ▲임종학(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 ▲황경태(경영석사·94)
- 법학전문대학원**
- ▲차기현(법학석사·10)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류인섭(원예·95)
 - ▲유영선(기계공학·1)
 - ▲임일빈(농학·89)
- 산업대학원**
- ▲권오진(토목공학·12)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 ▲안경섭(식품외식·18)
- 정책대학원**
- ▲김흥태(행정·5)
 - ▲신승수(행정·2)
 - ▲심재록(최고정책·14기)
 - ▲박성호(행정·0)
 - ▲오승준(행정·91)
 - ▲윤인후(행정·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 ▲한동석(행정·99)
 - ▲홍준일(행관·30기)
- 치의학전문대학원**
- ▲김예슬(치의학·15)
- 교직원**
- ▲유희석(교직원)

단과대학불분명
▲김종민
▲무기명(00·00)

2025년 11월 분

임원회비 (11월 1일~11월 30일)

고 문	
김남전(경제·60)	30만원
자문위원	
김영길(교육·99)	20만원
전상선(산관·09기)	30만원
조종태(명예회원·)	30만원
천득염(건축공학·73)	30만원

동창회 감사

이재봉(회계·90)	200만원
부회장	
김해경(경영석사·3)	20만원
류재민(경영석사·2)	30만원
신명근(의학·83)	50만원
이인호(법학·92)	30만원
정장규(경관·28기)	30만원
홍경섭(행정·87)	10만원

연회비 (11월 1일~11월 30일)

경영대학	
고광원(경영·74)	
공과대학	
문해주(기계공학·78)	
윤석하(섬유공학·71)	
이용일(화학공학·83)	
최경중(토목공학·78)	

농업생명과학대학	
남석우(농화학·85)	
법과대학	
임광섭(법학·74)	
주천득(법학·58)	
의과대학	
민혜란(의학·78)	
치과대학	
송진명(치의학·95)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F INVESTMENT

AF W파트너스 | AF W자산운용 | AF Infra Ventures

(주)에이에프인베스트먼트 | 대표/CEO 양관운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25F T_02.6197.9931 F_02.6197.9930